

# 지역 기술혁신·일자리 창출 산실 자리매김

## TP·전남테크노파크

기업육성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산·학·연·관 역량 결집 산업발전 동력 확보  
ICT지식센터 건립 등 국비 838억 확보  
남해안 산업벨트 활성화 경남TP 등과 협약



전남테크노파크 전경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 TP)가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시키면서 지역산업 정책기획에 필요한 국비 838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 시·군의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연구기관, 대학, 기업을 연계시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가 대표적이다. 전남 TP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 추진을 위해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남해화학, NH무역 등과 전남도·고흥군을 한데 묶어 농식품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19일 전남 TP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유동국 제6대 원장 취임 이후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을 비전으로 하고 지역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산업 발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면서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 1년 동안 83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지식산업센터 설립(260억원, 나주), 금속 가공 열처리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90억원, 광양), 수출형 기계부품공 산업육성 기반 구축(308억원, 순천),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180억원, 고흥) 등이 대표적이다. 각 시·군별로 대표산업과 관련된 정책·기획과제 관련 국비를 따내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뚝 선 것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57개 기업에 107억원을, 959개 기업의 마케팅 등에 150억원, 기술이전 중계를 위해 44건(기술거래금액 4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스타기업 30개사, 전남형강소기업 20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16개사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7월 전남TP 1인 창조기업(BI)으로 시작해 신소재센터 입주기업(POST-BI)으로 성장한 (주)더블유피는 창업 당시 매출 3억원에서 2018년 52억원으로 17배 초고속 성장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전남TP를 둘러싼 대내외 산업여건 역시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각 지역 테크노파크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이를 위해 올해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경영 기반 조성 ▲조직 전문성 강화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전남 미래산업 발굴 ▲기업중심 산업정책과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기업지원 실현 ▲청년이 일하기 좋은 전남형 일자리 사업 및 기업유치 추진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핵심 업무로



지난 3월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전남 수소에너지 산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선정한 바 있다. 조직 진단의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정기 이사회를 통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전 직원의 43%를 인사 이동하고 순환근무제를 도입했다. 도정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발굴을 위한 신사업기획팀 신설, 조선산업 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조선산업지원센터 설치, 전남도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설치, 산업간 융합을 통한 특화센터(신소재, 세라믹, 레이저, 우주항공 첨단소재)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술지원단 신설 등 전남 산업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혁신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전남TP는 이러한 경영혁신체제를 서둘러 안정시키면서 서서히 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전남도 100대 기획과제를 준비하면서, 대학·연구소·중앙부처·지역혁신기관 등과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남도내 42개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산업진흥협의회를 올해 개최했으며,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 미래전략 기획위원회, 기업중심 산학연 협의회,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과 순회 토론회 등을

조만간 개최하는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최근 광주·전남 상생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남해안 산업벨트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남TP, 부산TP와 경제협력 업무협약을 맺는 등 등 광역연계협력 체계를 구축중이다.

이밖에에도 전남도 중소기업 중심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을 위해 아시아·미국·유럽·오세아니아·아프리카 등 26개국 34개 도시에 전남테크노파크 해외비즈니스센터 44개소를 지난 2월 설치했다.

유동국 전남TP 원장은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기업중심, 기술중심, 시장중심,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TP는 지난 2003년 12월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거점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기업 현장 발로 찾아 문제 해결 제시 기술유망 중소기업 중점 육성할 것”

### 유동국 원장 인터뷰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난 2018년 10월 취임하면서 광주테크노파크(2010-2015)와 전남테크노파크의 두 기관의 수장을 역임하게 됐다. 20여년의 테크노파크 역사에서 두 기관의 장을 지내게 된 것은 최초의 사례다.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 육성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산업정책기획, 중소기업 종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경험한 바 있는 유 원장이 전남의 지역전략산업 유치·발전과 미래 신산업의 구축·성장에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와 관심이 높다. 다음은 일문일답.



에너지·드론 등 기반 구축  
스타기업·강소기업 66개 발굴  
기업지원·산업 정책 거점될 것

-지난해 10월 취임과 함께 상당한 성과를 냈다.

▲테크노파크의 주요 기능은 산업정책 기획과 기업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산업 정책 기획에만 838억원의 국비를 받았고, 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57개 기업에 107억원을 지원했다. 또 사업화 지원(마케팅) 959개 기업 150억원, 기술이전 중계 44건(4억8000만원) 등의 성과를 내 스타기업, 전남형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66개를 발굴했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금속가공, 기계부품, 드론 등과 관련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이러한 기반 속에서 신기술을 이전받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

-올해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위해 전남 TP의 방안이 있다면.

▲기술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현장성을 강화하겠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R&D)사업과 기업지원사업(BI&R&D)사업을 묶어서 지원하고 유망기술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도 이미 구축했다. 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해답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기업 현장을 발로 찾아가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취임 이후 줄곧 테크노파크 거점기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TP가 과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적 격차와 지역 불균형 성장, 지역 산업 정책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P는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하고, 기능과 역할에 맞게 조정·조율하는 거점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모으고 보완하기 위해 '열린 혁신(Open Innovation)'이 필요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앞으로 전남 TP는 지역산업 정책의 거점, 기업 지원의 거점,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겠다.

-현장 방문이 잦다. 기업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제5·6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을 하면서 매주 기업 현장을 찾아 200여 개 기업의 애로 사항과 기술 동향, 시장 흐름 등을 체크했다. 이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면서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전남에서도 역시 현장 속에 답이 있고 이는 이를 통해 TP가 기업중심·기술중심·시장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매주 목요일은 '전남기업 찾아가는 산업현장 소통의 날'로 정하고 기업인들과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역시 큰 도움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 급매 - 6500만원
- 문의. 010-6834-7400